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역사는 그 분의 이야기이다 [요한계시록 5:1-14]

설교자: 마이클 드 루이터 (Michael de Ruiter), 설교문 작성자: 존 드 보어 (John de Boer)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혼란스런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도 기쁨과 시련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 아이기 공항에서 수백 명의 승객, 오고 가는 항공편, 짐 운반대에서 이동하는 수많은 짐들, 연료 트럭, 음식 배달을 보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면 무작위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하며 명령하고 통제하는 공항 관제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관제탑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 힘든 시기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림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설교본문 5장은 두루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역사의 책이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절 - 누가 두루마리를 펼쳐 보는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황폐해진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삶 속의 문제, 노숙자, 인도의 빈민가, 부패한 정부가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절 - 사도 요한은 절망에 빠져 울었습니다. 5절 - 유다의 사자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적을 물리치고 허물어진 것을 고칠 만큼 강할까요? 설교본문에서 장로는 유다의 사자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봅니다. 전능함을 상징하는 7개의 뿔,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상징하는 7개의 눈. 사자와 어린 양보다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보다 더 대조적인 비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자는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사자입니다. 그 분은 지상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 분은 왕이셨지만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잔인하리만큼 하늘에서 거부당하셨을 뿐 아니라 땅에서까지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는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되셨습니다. 그는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운전자가 없는 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공항에 놓여있다고 자정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이시며 사자되신 우리 구세주로 인해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삶이 힘들어 보이나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장로들과 생물들과 수천만의 천사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들의 찬양은 보좌에서 하늘로 울려 퍼져 나아갑니다. 어린 양은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7가지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 즉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분은 내일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고 계시며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그 분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뉴스나 인터넷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